



## 요약

### 사설

우리를 기다리는 파티마!

### 양성 여정

아드마 양성 프로그램2024-2025.

### 나자렛. 하느님의 모든 가족

10. 어머니이며 스승이신 마리아.

### 겸손하고 가장 뛰어난 피조물

통합생태학의 스승이신 마리아와 함께 걷기

11. 새로운 세계의 어머니.

### 받은 은총에 대하여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 가족연대기

- 르완다: ADMA와 살레시오협력자 회원들의 서약식.

- 페루 - ADMA 회원들의 만남.

- 슬로베니아 - ADMA 회원을 위한 연례강화.

- 새로운 칼럼 : 아드마 프리마리아가 답하다.

- 죽은 아드마 회원들을 위한 연미사.

### 월간 기도지향

7월 - 8월

## 사설

### P.1 마리아 성심의 신심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P.2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파티마에서 열리게 될 2024년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대회를 향한 사목적 양성적 여정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형제적인 인사를 전합니다.

P.4

P.7

파티마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 살레시오 가족의 사명이며, 돈 보스코의 사명의 기원인 아홉 살 꿈을 되새기며,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리고 젊은이들과 함께 가는 길에,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를 동반해 주시는, 어머니이시며 스승이신 마리아의 중재에 대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P.8

P.10

우리는 올해 살레시오적 특징인 중요한 주제, 아모레볼레자와 온유의 힘, 이름의 신비, 불가능하게 보였던 오라토리오적 사명어로의 부르심과 성소를 묵상했습니다.

P.10

P.11

그리고 이 사설을 쓰는 순간에도 하느님의 말씀은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강하고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통해, 우리를 사명어로 돌아가도록 초대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과 봉사, 우리가 참여하는 활동을 재해석하고, 모든

P.11

P.11

P.12



것을 하느님 아버지의 손에 맡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다음에는 이삭에 낱알이 영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댄다. 수확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마르 4,26~34).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를 인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의 계획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꿈에서 요한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아무도 자신의 이름을 자기 스스로 짓지 않으며,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 이름에는 부르심이 기록되어 있으며, 방법이 제시되어 있고(구타가 아니라 온유와 자비로), 사명/목적(친구들을 얻는 것), 내용(죄와 덕에 대한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사명이 무엇이든, 그분은 우리에게 오직 그분의 왕국이 싹트고 자라게 될 것을 확신하시면서, 그분의 사랑의 씨앗을 뿌리시고, “씨앗이 되라”고 요청하십니다. 하느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우리는 그

주인공이 아니라 그분의 협조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토양이 스스로 열매 맺음을 아는 것은 위로가 됩니다.

ADMA로서 우리는, 이 하느님 말씀의 빛으로, 지난 한 해를 생활지표에 따라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보다 약한 사람들과 젊은이들을 위한 우리의 헌신은 헛되지 않았으며, 교육적이고 양성적인 의무도 잊지 않았고, 마리아를 알리려는 우리의 열망은 실망함이 없었으며, 우리가 자신은 그저 농부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일한다면, 일할 수 있는 토양인,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받아들이고, 성급하게 수확한 것을 평가하지 않으며, 만나는 모든 젊은이의 마음의 성숙을 위해 필요한 시간만큼 기다릴 줄 안다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오늘은 작은 씨앗이지만, 내일은 발아해서 성장할 것입니다.

모두에게 평화로운 여름을 기원합니다.

**가브리엘 크루즈 트레호 신부SDB,  
ADMA 발도코 영적활성자**

**레나토 발레라,  
ADMA 발도코 회장**

## 양성 여정

### 아드마 양성 프로그램2024-2025: 교회의 희년을 위한 위대한 기도의 교향곡

2024~2025년 아드마 양성 프로그램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처럼, “교회의 삶에서 항상 영적, 교회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인, 2025년 희년의 길에서 있습니다. 1300년, 교황 보니파시오 8세가, 첫번째 성년을 반포한 이래, 처음에는 성서적 모델에 따라 50년마다 오랜 기간 거행되어 오다가, 점차25년으로 고정되었으며, 교회는 성년을 맞이하여 특별한 은총의 선물, 하느님의 충만한 자비의 표현인, 죄의 용서를 뜻하는 대사를 베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희망의 순례자’로 희년을

선포하였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의 햇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고, 모든 사람이 열린 마음, 신뢰하는 마음, 멀리 내다보는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힘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희년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다가오는 희년은 우리 모두 느끼고 있는 절박함으로부터 새롭게 부활하는 표시로, 희망과 신뢰의 분위기를 재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황은 “보편적 형제애의 감각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을 보며, 수백만 명의 남성, 여성, 청년, 어린이, 특히 교황을 떠나야

하는 수많은 난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없는 현실에서, 만연한 빈곤에 눈감지 않는 희망을 키우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성경의 명령에 따라, 각자 자신의 땅에서 소출한 것을 되돌려주는, 희년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합시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순례자라는 마음”으로, 이 땅의 아름다움을 보존하기 위하여, 회심의 영적 여정을 걸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양성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더욱 더 나은 일치의 표징과 도구”가 되라는 초대를 받습니다. 교회의 삶과 교회를 건설하기 위해 참여하며,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사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올해의 양성 여정은 교황님의 초대에 따라, 희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기도의 “위대한 ‘교향곡’이 되도록 바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현존에 머물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흠송합시다. 또한 우리 모두 함께 그분의 창조물을 존중하고 돌보며,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의 선물을 찬미하면서,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행동으로,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큰 사랑의 선물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바칩시다. “한 마음 한 뜻”(사도 4,32 참조)으로 드리는 기도는, 연대와 일용할 양식의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기도는 이 세상의 모든 남자와 여자를 한 분이신 하느님께로 향하게 하고, 마음의 감추어진 비밀을 그분께 표현하도록 해줍니다. 기도는 거룩함에 이르는 스승의 길이기며, 일을 하면서도 관상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해에는, 풍부한 은총을 받도록 마음을 열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기도, 그의 모든 제자들의 삶의 계획이 된 기도인, “주님의 기도”를 바칩시다. 따라서 여름 피정을 시작으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일상생활 안에서, 부부로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깊이 있는 기도생활을 하도록 합시다.



이 길은 세 단계로 나누어질 것이며, 각 단계마다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우리는 간단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이 우리 삶에 살아있게 하기 위해, 이를 배우고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 마음을 쏟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며 어떻게 말씀이 자양분이 되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지 깨닫게 되며, 말씀을 위해 침묵의 공간을 마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 우리의 생각도 침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렉시오 디비나와 증거자들의 친교적 나눔은, 지속적으로 기도 안에 사는 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 식별:** 말씀을 더욱 잘 듣기 위해 우리는, 돈 보스코와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이 소중하게 여겼던, 이냐시오 방법을 통해 몇 가지 영의 식별을 성장시키기 위한 발걸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하면 일상 안에서 식별을 잘해낼 수 있을지, 그 특혜적인 순간과 구체적인 방법을 정확하게 찾게 될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유혹을 차단하고, 빨리 벗어나며, 성령의 영감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살기:** 마지막으로 돈 보스코에게 관상이란 무엇인지, 활동하는 관상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기도가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이 기도로 변화될 때, 그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됩니다. 아홉 살 때의 꿈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 “... 죄의 더러움과 덕의 고귀함을 가르치기 시작”한 순간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삶의 기도, 죄를 피하고, 믿음과 신뢰, 미소, 행동의 덕을 기쁘게 추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삶의 기도를 바치게 되며, 또한 삶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가르침에 따라, 특히 가장 가난한 이들 안에, 희망이 자라게 하며, 이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우리 공동의 집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조화와 일치의 표징과 도구가 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대희년을 준비하면서, 성모님께서, 교회와 살레시오 가족, 그리고 우리 회를 동반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 나자렛. 하느님의 모든 가족

## 10. 어머니이며 스승이신 마리아

우리는 나자렛의 학교에서 계속해서 가정교육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나자렛의 성모 마리아께 봉헌하는 미사 전례에서, 교회는 언제나 마리아(그리고 교회도 그녀와 함께!)가 우리의 어머니요 스승이라는 사실을 묵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요 스승이었고, 그러기 위해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에 의해 양육받았으며, 완전한 제자가 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되새기게 됩니다. 이 미사의 아름다운 서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요람인 나자렛 집에서 마리아는, 아드님과 매일 친밀하게 지내시면서, 우리에게 귀중한 삶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자 제자인 마리아는, 복음의 첫 열매들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생각하십니다.’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면서 예수님과 맺은 친밀감은, 마리아로 하여금 아드님의 제자가 되게 했고, 그 제자됨으로 인해 마리아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어머니이자 권위 있는 스승**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의로운 사람인 요셉의 배우자이며 동정녀로서, 사랑의 유대”를 이루셨고, 교회 안에서 순환되고 있는 바로 이 사랑이, 그대로 두면 취약함으로 인해 죄와 죽음을 견뎌내지 못하는, 모든 자연적 유대를 초자연적인 것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는 마치 아이에게 초자연적인 질서뿐 아니라 자연적인 질서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필요하다는 단순한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이 사실은 변할 수 없으므로, 어떤 심리사회학적 연구술이나 사회정치적 압력으로도 우리를 설득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나자렛 집에서 나오는 ‘소중한 삶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부모와 자녀 관계의 네 가지 패러다임, 즉 라이오스와 오이디푸스, 자비로운 아버지와 탕자, 아브라함과 이사악, 마리아-요셉과 예수님을 레칼카티의 뛰어난 책 ‘아들의 비밀’을 보며,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속감과 자유

너무나 자유로웠던 예수님의 어린시절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면서도, 성자로서의 신비를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가는 과정이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롭거나 종의 모습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둘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아들의 구체적인 이상이며, 부모와의 유대를 통해 감사드리며, 하느님 안에서 더 큰 기원과 운명을 인식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긴장은 있지만, 갈등과 파멸로 이어지지 않으며,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부정하거나 죽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인이 되어, 어머니의 동의와 하느님 아버지와의 완전하고 사랑스러운 일치 아래, 사명을 수행할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사람을 죽음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사명은, 그리스 신화나 프로이트의 이야기와는 달리, 인간의 경험을 상징하고, 서구 문화의 **근본적인 특징인 가족의 비극 또는 영아 살해나 실제 또는 상징적인 패트리샤의 그림자도 없으며, 권위주의적이거나 근친상간의 흔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는 법과 자유, 가족의 유대, 개인의 운명이 비인간적이거나 광신적인 것이 아닌, 행복한 인간과 신의 합의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자렛에서는 모든 가정이 완성해야 할 교육적 계획, 자녀에게 해방을 주는 관계를 통하여, 자신과 자녀의 신비에 대한 강한 존중과 사랑이 있었으며, 전통과 새로운 것 사이의 행복한 균형이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인간 세대의 역사 속에서 하느님이 거하시게 된 곳이 나자렛입니다. 나자렛의 모범을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공유할 수 없는 공유가 있으므로, 공동생활을 해나가면서도 각자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전유물이거나 소유물이 아니므로, 나누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으며, 마리아와 요셉은 이것을 처음부터 이해했으며, 끝까지 모범적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진정한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상속으로 주어진 것을, 독창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것으로 상속받았으며, 스스로 새롭고 영원한 계약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임무는 - 레칼카티가 잘 표현했듯이 -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선 이들이 그에게 물려준 것을, 개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주관적으로 되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잃었던 아들

라이오스와 오이디푸스 사이에는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라이오스는 아들을 두려워하고, 오이디푸스는



아버지를 미워합니다. 죽음의 운명이 두 사람을 모두 짓누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 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것입니다. 운명의 법칙이 적용되며 자유도 은혜도 없습니다. “오이디푸스는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묶는 상징적 빛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주장만을 주장하는 사람의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게다가 오이디푸스의 아버지는 자신의 죽음을 맹세하는 것 외에는 아들에게 어떤 유산도 물려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출산 능력이 없는 권위주의적인 아버지와 상속권이 없는 배은망덕하고 반항적인 아들의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지향, 욕망의 진정성, 무엇보다도 ‘지나친’ 사랑의 이야기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사랑은 결코 지나치지 않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지나치다’는 것은, 너무 과해서 균형을 갖지 못하며, 성숙하지 못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지나치지 않기 위해, 아직은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자녀가 부모에 대해 느끼는 사랑은 큼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감정은 경험 부족, 미성숙, 이기심으로부터 보호되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 아니며, 따라서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에 감사하며, 미래의 세대인 그들을 희망해야 합니다.

**오이디푸스는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자신을 낳아준 사람에 대한 감사의 빛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법과 권위를 독재적이며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모든 아들은,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타인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확신만을 목표로 하는 아들, 자신의 빛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욕망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나는 나를 태어나게 해 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말은, 많은 청소년들이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부모를 협박하는 것으로 씁니다. 그러한 청소년의 경우, 그의 부모가 참되고 선한 것을 자녀에게 증거하지 않으며, 물질과 걱정으로 자녀를 짓누르게 하고, 그로 인해 비난조차 하지 못하는, 가식적이고 이기적이며 폭력적인 부모에게서 자주 발견됩니다. ‘모든 형태의 빛을 지는 것을 거부하면서 자신은 영구적으로 빛이 없는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바로 레칼카티가 말하는 아이입니다. 빛을 지기를 거부하기에, 그는 요구하면서도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 비유는 자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자유만을 주장하는 아들의 모습을 적절하게 보여줍니다. “내놔!”라는 아들의 명령 같은

요구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아버지만의 것으로 가지고 있음을 암묵적으로 비난하는 것입니다.

### 되찾은 아들

되찾은 아들은 자비로운 아버지의 비유에 나오는 아들입니다(루카 15,11~32 참조). 그리고 그의 형도 역시 길을 잃은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둘 다 모두 자유롭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아버지의 법을 오해합니다. 한 사람은 법을 어김으로써 자신을 주장하려 하고, 다른 아들은 순종을 통해 인정을 받으려 합니다. 한 아들은 은총을 잃어버리고, 다른 아들은 많은 은총 속에 짓눌려 있습니다. 말하자면 두 아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내 아들이, 내 것은 네 것이다’라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에게 이 말은 다음과 같이 들립니다. ‘아무도 너에게서 빼앗지 않을 상속 재산을 왜 물려 받으려고 하니? 왜 모든 것을 지금, 바로 하지 않으면서,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니?’ 반대로 장남에게는, ‘너는 노예가 아니라 아들이야! 원할 때 언제든지 네가 가질 수 있어!’

그렇다면 어떻게 작은 아들이 어떻게 되찾은 아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아버지는 아들을 단죄하는 율법을 넘어서서 자비로 아들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레칼카티는, ‘율법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 아들을 돌로 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율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재산의 상속은 사망할 때에만 상속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시켜 주지 않습니다. 마치 ‘너 자신이 되기 위해 나를 죽이지 않아도 되며, 삶을 즐기기 위해 법을 위반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는 아들이 바라던 노예 대우를 거부하고 아들의 상징으로 다시 옷을 입혀 줍니다. 마치 그에게 ‘단죄하기를 바라지 말고 용서를 구하라. 나는 너의 죄를 보지 않을 것이며, 나는 너를 내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아들이 되돌아옴의 축제를 함으로써, 세 번째로 이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교 논리에 따라, 또한 많은 신앙을 가진 부모와 신앙이 없는 부모들도, 이미 삶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부모들은 자녀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자신을 해치지 말라고, 결국 승자는 악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수천 번이나 훈육으로 가르치며, 이것은 **부모들이 아들이 회개할 때, 용서하게 하고,** 그의 잘못을 가지고 그와 맞서기보다, 오히려 그를 찾은 것을 축하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용서는 공로의 열매가 아니라 모든 결점을 극복하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레칼카티는 ‘용서는 아들이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며, 회개에 대한 보상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회개를 진정으로 가능케 하는 것은 용서입니다. 회개는 냉소적인 추론(‘아버지가 노동자들을 대하듯이, 나도 그들처럼 대해줄 것이다.’) 이 아니라, 회심, 변화, 진정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분명한 것은 회개는 용서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용서는 회개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심리적, 교육적 관점에서 볼 때, 주목할 만한 점은, 아버지가 아들을 잃을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되찾게 된다는 점입니다. 레칼카티는 ‘상태에 따라 아들은, 항상 반항할 권리를 요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가족은 세상의 지평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환대, 가정, 가족이 필요한 것처럼, 동일한 강도로 떠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며, 자신만의 비밀을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소속감과 방향은 삶의 인간화 과정에서 중요한 두 개의 축입니다.’ 말하자면, 부모가 ‘교육적 위험’을 수용하지 못하면, 규율의 힘(오늘날의 과도한 보살핌, 말, 지시, 설명, 보호의 의미)으로 자녀를 보호하려고 노력하여, 규율과 욕망 사이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그로 인해 자녀의 성장에 필수적인 규율과 욕망의 관계는 불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성 바오로는 율법은 교육에 불과하며, 정말 중요한 것은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잘못이지만, 부모가 규칙의 해석자이며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규칙은 사랑이 그 내용이며, 사랑의 핵심은 자비입니다.

### 희생된 아들

하느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우리의 믿음은 실제로 그리스도교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공경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하느님께서 일하신 것을 근거로 합니다. 아들을 ‘봉헌’해야 하는 끝없는 위험에 직면하게 된 아브라함에게, 하느님은 이사악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청하고,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대로 곁에 둔다면, 인간으로서 아들의 길을 막고 새로운 것을 성취하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아들을 잃을 줄 알면서도, 아들을 봉헌하려 하자, 하느님으로부터 기적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모든 부모들을 기다리는 시험에 아브라함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율법에서, 모든 왕의 아버지는 자신이 낳은 아들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상징적인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것처럼, 아들을 사막에 버리는 것, 아들을 잃는 법을 아는 것, 모든 소유권을

희생하는 것, 자신의 아들을 잃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 일반적으로 모든 부모의 자식에 대한 가장 높은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요?

그러나 하느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기에, 아버지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인간이 되게 하시어, 올바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실현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요한 3,16). 성 요한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느님 사랑의 극치를 표현하는 엄숙한 말씀입니다.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되었던 이사악의 희생은 궁극적으로는 “중단된 희생”(페트로시노)이지만, 아들의 희생은 마지막까지 완성됩니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요한 13,1). 하느님의 비부성적 부성애와 십자가 아래서 마리아의 비모성적 모성애는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순종적이며 용감한 아들의 걸작을 실현하도록 하며,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고 성공적인 삶의 패러다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주는 것이 중요하며, 생명을 막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마태 10,39).

아이들이 나약해지거나 주제 넘은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다음의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참사랑은 기쁨과 희생이다. 생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기꺼이 목숨을 바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사도 20,35)는 사실을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모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부모에게 일찍부터 너무 많은 희생이 부과되었다면, 요즘은 오히려 모든 희생을 피하려고 하며, 즐거움을 찾고, 그것을 탐닉하는데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경에서 이미 확신하고 있으며, 반복하고 있는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영화 속에 있으면서도 지각없는 사람은, 도살되는 짐승과 같다.”(시 48, 3. 21)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로마 5,3)라는 말씀처럼, 시련을 잘 견디면 사람은 성장합니다.

로베르토 카렐리 SDB



# 겸손하고 가장 뛰어난 피조물 - 통합생태학의 스승이신 마리아와 함께 걷기

## 11. 새로운 세계의 어머니

프란치스코 교황은 회칙 「찬미받으소서」 241항에서, 하늘로 오르시어 영광스럽게 되신 마리아께서는, 피조물이셨지만 완전한 아름다움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마리아에 관한 것처럼 들립니다. 아들 그리스도처럼 마리아께서 육신으로 부활하심은 마리아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은사는 언제나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영광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영광의 성모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운명을 보게 되고 믿음과 소망, 사랑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묵시록 12장에는 한 신비한 여인이 중앙에 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 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열 두 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2 그 여인은 아기를 배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3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크고 붉은 용인데,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었으며 일곱 머리에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크고 붉은 용인데,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었으며, 일곱머리에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4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그 용은 여인이 해산하기만 하면 아이를 삼켜 버리려고, 이제 막 해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지켜 서 있었습니다. 5 이윽고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사내아이는 쇠지팡이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분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아이가 하느님께로, 그분의 여좌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6. 여인은 광야로 달아났습니다. 거기에는 여인이 천이백육십 일 동안 보살핌을 받도록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처소가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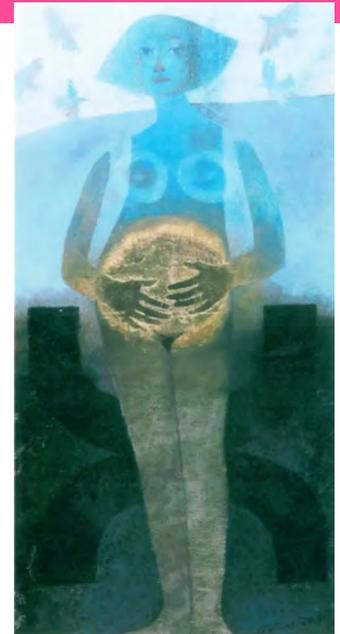
교회의 전통은 이 여인에게서 마리아의 구체적인 인격과 하느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교회의 인격화로 보았습니다. 이 투쟁과 승리의 이미지를 통해, 신앙 공동체는 여자와 그 후손에 관한 창세기의 예언을 다시 읽습니다(창 3,15). 그러므로 이 신비한 여인은 새 하와, 탁월한 여인입니다. 즉 주님께서 구원하신 세상, 새로운 세계의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그녀 안에서 유딧, 에스델, 시편의 신부, 교회의 부르심인 마리아, 즉 세상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협력자가 되라는 부르심을 묵상합니다. 사실 메시아의 탄생은 말씀이 사람이 되신 성령의 활동을 통해 마리아처럼, 모든 신자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실현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설명할 메시아의 탄생은 베들레헴의 탄생이 아니라 부활절 아침의 탄생입니다. 십자가 출산의 고통이란 모든 피조물이 새로워진 갈바리오의 고통과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아들은 단지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세례로 다시 태어나 하느님의 자녀, 교회의 자녀, 마리아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합니다(참조 요한 3,3~8, 마태 18,3). 여인이 사막으로 도피하는 것은 일종의 새로운 출애굽입니다. 사실 광야는 친밀함과 하느님의 보호가 있는 곳입니다. 주님의 부활 이후 교회의 시대가 열리고, 박해가 시작되지만, 생명의 빵, 하느님의 말씀, 성체는 결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호세 2,16~25 참조).

우리는 이 신비한 여인을 생성성의 한 예로 보고, 이러한 관점에서 그녀에게 속한 상징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녀는 태양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하느님의 빛 안에서 총명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으며 숨길 것이 없습니다(참조 창 2,25). 성경에서 패배한 적들을 위해 마련된 장소인 그녀의 발 아래에는, 창조의 불안정함을 상징하는 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은 자전하기 때문입니다. 달을 발 아래 둔다는 것은 자신의 생식력을 알고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자는 별들로 관을 썼는데, 숫자 12는 이스라엘 지파와 사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상징은 여자가 하느님과 맺은 옛 언약과 새 언약에 이중으로 속해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창조 이야기에서 별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냅니다(창 1,16 참조). 따라서 별의 면류관은 여자가 시간의 흐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간과 함께 평화롭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여자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속하는 피로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용기는 삶에 대한 열정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녀가 낳은 아기는 그녀의 것이 아니므로, 그녀는 곧 아기를 빼앗깁니다. 본문은 마치 우리가 생명을 준 사람들이나 일에 대한 자유, 생성성의 근본적인 차원을 말하는 것처럼, 수많은 후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묵 12,17).

요한 묵시록의 저자는, 몇 구절 뒤에서 용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창세기에서 여자를 속여 선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즉 하느님과 동등하게 되기 위해, 강제로 차지하려고 했던, 고대 뱀, 유혹자입니다(창 3,5). 창세기에 따르면, 창조주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부족을 표현하는 행동 결과의 하나는, 이웃을 마치 자기 소유인 양 취급하는 경향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어머니는 자녀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끊기 어려운 고통의 사슬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참조 창 3,16. 4,1). 그러므로 요한묵시록의 비전은 역사의 피로 얼룩진 투쟁의 텍스트이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빛의 후광에 싸인 명상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용은 마지막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눈물은 닦여지고 죽음은 영원히 패배할 것입니다(21, 4).

출산의 진통을 겪는 여인의 모습은 아마도 박해받는 공동체 기도의 열매일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주님의 부활의 빛 안에서 성령의 인도 아래 함께 성경을 다시 읽고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저자는 그것을 “예언”(1,3. 22,7,19)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성경의 언어에서, 시대의 징표에 대한 해석이자 현재의 순간에 대한 충실성을 요구하는 단어입니다. 본문의 의도는 악한 자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으며, 우주가 하느님 아버지의 손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고통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는 지치지 않고 자신의 생물을 돌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멸망과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영광은 모든 피조물의 영광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과 함께 마리아와 예수님의 영광을 공유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그분의 눈에는 소중하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창조는 하느님에 의해 우리 손에 맡겨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으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돌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마리아와 함께 통합적 생태를 향한 신자들의 헌신과 그 관계에 대해 생각해 온 올해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에 영감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태적 회심을 하기 위해 힘이 들더라도 우리를 지원해주고 격려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 보스코는 어려울 때마다, “천국의 한 조각이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 하느님의 신의를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린다 포케르 수녀FMA

## 받은 은총에 대하여

###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의 손을 잡고 기쁨과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우리는 안드레아와 엘레나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우리는, 성모님께서 우리 삶의 매 순간, 얼마나 많이 우리와 동행하셨는지, 성모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기억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 믿음

엘레나: 신앙의 선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살레시오 가족을 통해, 학교와 성당에서, 그리고 청소년 체험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모님을 개별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돈 보스코가 우리에게 가르친 것처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단순하고 변함없는 마리아의 모습을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 만남과 결혼

**안드레아:** 저희가 받은 또 다른 선물은 만남과 결혼입니다.

우리는 마리아 성지순례 중에 만났고, 제가 엘레나를 처음 본 것은 마리아에게 봉헌된 성당에서였습니다.

약혼 기간 동안, 함께한다는 기쁨과 더불어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상처도 드러났습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11살 때 부모님이 별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카르페 디엠’으로 경험할 위험이 있고,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즉시 가져야 한다는 위험이 있는 반면, 엘레나에게는 결혼을 하고 이 성사에 자신을 완전히 바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혼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 두 가지 두려움이 충돌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일깨워 주신 마리아께 자신을 맡겨야 했고, 날마다 성모송을 바쳤으며,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결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7년 전 발도코에서 결혼했는데, 그 선물 중의 선물은 도움이신 마리아와 돈 보스코가 저희를 위해 그들의 집 문을 열어준 것이었고, 저희는 그 집에서 결혼식을 거행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저희에게 그날의 복음으로, ‘가나의 혼인잔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복음에 저희의 이야기가 요약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라고 말씀하시는 마리아의 현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고, 또한 저희는 돈 보스코의 바람대로 매일의 의무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확신하며, 항아리를 채우려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랑으로 4살인 안나와 2살인 베아트리체가 태어났습니다.

### ADMA

**엘레나:** 우리가 성모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 중의 하나는 도움이신 마리아회ADMA라는 선물이었습니다.

저희의 결혼을 축하해준 주례신부님과 친구들의 조언에 따라 결혼 후 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우리집에 있는 것 같았고, 가족과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상 안에서 기쁨을 나누고 서로를 지지해줄 수 있는 여행 동반자들을 만났습니다. 또한 살레시오 영성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기쁨과 일상의 의무로 이루어졌으며, 우리는 그곳에 완전히 속해 있다고 느꼈습니다.

2년 전 우리도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부르심과 필요성을 느꼈고, 회원이 되기로 결심하여, 지난 10월부터 입회지원자 과정에 참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질병

**안드레아:** Adma에 합류하기로 결정하고 고민하던 그때, 엘레나가 악성 유방 종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지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마리아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파란 스퀘어와 회원증을 받는 것은 쉬웠지만, 하느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는 것은 더 어렵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성모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은총의 열매인 기쁨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린 두 딸을 키우며 홀아비로 남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엘레나가 두 딸을 재울 수 있는 마지막 저녁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했지만, 결코 거기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서약을 하는 날, 아름다운 서약식 사진을 찍은 후,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와 돈 보스코를 통해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하게 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엘레나의 머리카락은 이미 모두 빠져 있었습니다만, 이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라 믿기에, 우리에게 성 바오로는 낡은 남자와 여자의 옷을 벗으라는 표시를 깨달으라고 일러주었습니다. 6개월간의 침습적 치료를 받은 후, 이번 성 목요일에 엘레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 토요일에 대성당에서 네 식구가 함께 부활 밤미사에 참여하면서 첫번째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병원에서 전화가 왔고 종양 전문의는 엘레나가 완치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아직 몇년간은 예방 치료가 필요하겠지만, 완치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대성당으로 돌아와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의 발치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 받은 은총에 대하여

집에서, ‘카펠리타’, 모든 가정을 방문하는 작은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의 성상 앞에서, 딸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스시와 크로디노를 곁들여 기쁜 소식을 전하며, 축제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쁨은 우리가 언제나 간직할 선물이 되었습니다.

살레시오 가족 전체, 특히 아드마, 그리고 교회 전체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신 것에 대해 저희는 감동했으며, 저희의 마음을 감사로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스페인, 미국 등 우리와 함께 친교를 이루는 전 세계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드마 회원들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기도, 친교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친척들이 미소와 악수, 간단한 WhatsApp 메시지를 통해, 깊이 배려해 주었습니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드레아와 엘레나: 우리는 대성당에서 단순히 성모상으로서가 아니라 성모님께서 정말 살아 계시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성당에서 무한한 은총이 쏟아져 나왔고, 우리도 이 놀라운 이야기의 일부이기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총을 말하면서 소름이 돋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돈 보스코의 마음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하며 감사드립니다.

## 가족의 연대기

### 르완다 - ADMA와 살레시오협력자 회원들의 서약식

4월 28일 일요일, 도움이신 마리아회(ADMA) 33명과 살레시오협력자회 11명이 서약을 갱신했고, ADMA회 4명과 살레시오 협력자회 6명이 첫 서약을 했다. 이들은 “카를로 황가” 준관구(AGL) 소속으로, 카브가이에 있는 “미켈레 루아” 청원소에서 서약식을 거행했다. Pierre Célestin Ngoboka 관구장 신부는 미사를 집전하면서, 이 새로운 살레시오 가족이 “돈 보스코가 우리에게 요청한 일을 실천하도록 돕기 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 페루 - ADMA 회원들의 만남 : 양성, 기도, 함께 하는 삶

4월 20일 토요일, 페루(PER) “리마의 성녀 로사” 관구의 관구관에서, 아드마 세계영적지도자인 가브리엘 크루즈 신부의 방문을 계기로, 도움이신 마리아회(ADMA) 회원들의 만남이 있었다. 리마와 막달레나 델 마르, 브레냐, 칼라오, 리막, 바리오스 알토스, 그리고 수도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초시카 공동체 대표와 함께 모두 82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양성중인 이들과 Piura와 Huancayo 센터의 다양한 그룹들도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모임은 양성과 기도, 함께 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이 모임은 페루 ADMA 영적 활성화자인 라켈 이바네스 수녀(FMA)와 요셉 캄자 신부(SDB)가 조직하고 조정했다(페루



부관구장도 겸임). 페루의 ADMA는 약 20개 지부(FMA와 SDB 소속)가 있으며, 사랑의 성체성사와 도움이신 마리아 신심을 전파하는 사명 안에서, 700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 슬로베니아 - ADMA 회원을 위한 연례강화

4월 19일~ 21일, 슬로베니아 살레시오 관구관(SLO), 도움이신 마리아회(ADMA) 회원들은, 베르제이의 마리아니슈에 모여 연례 강화와 영적 쇄신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 ADMA 관구담당 야네즈 제로브닉 신부(SDB)는, 이 행사를 위해 미란 사조비치 신부(SDB)를 초청하였으며, 그는 살레시오 가족 안에서, 마리아 신심을 통하여 성덕의 길을 걸었던, 복녀 에우세비아 팔로미노 수녀(FMA)와 하느님의 종 안드레이 마센 신부(SDB)에 대해 강의했다.



## 새로운 칼럼 : 아드마 프리마리아가 답하다

독자 중 한 분의 요청에 따라, 일반적인 관심사에 답하기 위해 새로운 칼럼으로 '아드마 프리마리아가 답하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제에 대한 제안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메일([adma@admadonbosco.org](mailto:adma@admadonbosco.org))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망한 아드마 회원들을 위한 연미사

매월 24일 전 세계에서 사망한 모든 아드마 회원들을 위해 토리노 도움이신 마리아 대성당에서 오전 9시에 추모미사가 거행됩니다.



## 월간 기도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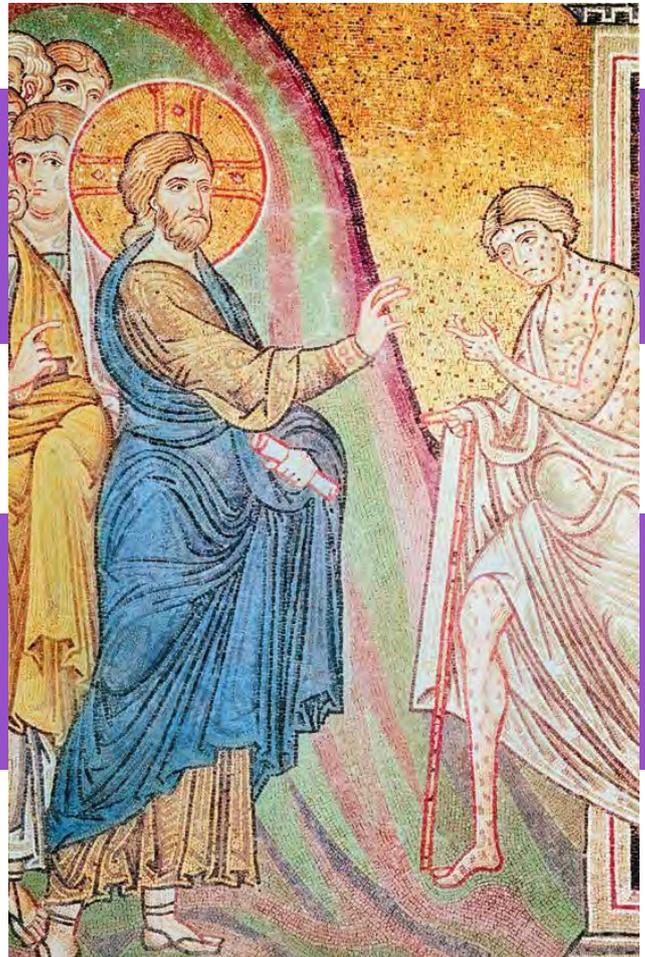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지향에 따라 전 세계 모든 아드마 그룹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 7월 - 병원 사목을 위하여

병자성사가 성사를 받는 이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모든 이들을 위한 연민과 희망의 가시적인 표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8월 -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온전한 인간 발전과 공동선을 위해 일하며,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돌보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기사와 사진 보내기

여러분이 수행하는 양성 모임, 도움이신 마리아 24일 기념, 봉사활동의 기사와 사진 제목과/또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기사(.doc 형식, 최대 1200자 공간 계산하지 않음)와 최대 2장의 사진을(jpg디지털 형식 및 너비 1000px 이상의 크기)

adma@admadonbosco.org 로 보냅니다. 이메일 “가족 연대기”의 제목과 텍스트에 저자의 자료를 표시하는 것 (이름, 성, 촬영 장소, 소속 Adma, 도시, 국가)은 필수적입니다.

보냄으로써, ADMA는 항상 저자의 이름을 인용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기사와 사진을 처리하고, 출판하고, 부분적으로라도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 받습니다. 이미지는 편집진의 재량에 따라, <https://www.admadonbosco.org> 사이트 및/또는 다른 ADMA 출판물에 제목과 저자의 이름과 함께 발행될 수 있습니다.